

滿洲의 가작크村

Travels of Kajack Village in China

朱命錄/(주)인천건축사사무소

1. 滿洲國務院 建築局

8.15前 滿洲國務院 建築局에 재직시의 이야기인데 처음보는 생소한 기구명칭일 것이므로 本題에 들어가기전에 건축국의 기구기능과 만주국의 구성과 그때의 현황 등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건축국은 원래 국무원 營繕需品局으로서 일본정부 대장성의 營繕管財局과 유사한 관청인데 당초기구는 서무과 제1공무처 제2공무처 需品處로 되어 있었다.

1940년 기구개편으로 국무원 건축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품처가 떨어져나가고 기구도 서무과, 제1공무처, 제2공무처 住政處로 되었으며 국장 밑에 直屬부서로서 서무, 인사, 회계, 용도를 관장하는 서무과가 있고 그외의 부서로서는上記와 같은데 處에는 科, 科에는 股가 있었다.

그 당시의 만주국에서는 한국의 部에 해당하는 部와 處에 해당하는 局과 課에 해당하는 科와 係에 해당하는 股가 있었다. 국무원이라 함은 內閣을 말하며 정부기구는 한국과 비슷하나 外務국(외무부에 해당함)이라던지 건축국같은 기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리대신 직속으로 되어 있었다. 또 총리대신 직속으로는 일본의 內閣官房格인 總務廳이 있었는데 이 총무청장관(일본의 官房長官에 해당)은 일본인으로서 만주정부 사실상의 최고위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었으며(各部에는 명목상 大臣級만 중국인이고 실권은 次官인 일본인 수중에 있고 各部마다 전직원의 85%이상인 일본인이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자리의 하나인 경제부의 차관자리에는 수년전에 故人이 된 한일협력회장이며 그전에는 日本首相을 지낸 바도 있는 岸(기시)信介氏였는데 이

사람은 東大 金時計組의 수재로써 군부의 강력한 추천으로 부임해 와 있다는 소문이었다.

건축국의 제2공무처에는 宮殿造營科란 것도 있어서 마지막 황제로 유명해진 부의황제의 宮殿 신축과 營繕業務도 관장하고 있었으며 전국 건축공무원의 人事權도 장악하고 있었다. 건축국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자면 전직원의 95%정도가 일본인들로서 일본의 중앙관청이나 지방관청에서 차출됐거나 거기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者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東京帝大 建築科 出身들을 머리와 척추로 하고 그들을 손발로 하여 全 만주국의 건축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큰 규모의 官廳이었다.

滿洲國의 그 당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가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약 5배이고 대량으로 매장된 양질의 유무연탄과 철, 동 텅스텐, 망간, 등등이 무진장이며 근래에는 전에는 발견 못했던 석유까지 대량 생산되어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며 거기다가 직경 1m가 넘는 紅松 및 길이 9m가 넘는 낙엽송들의 산림대가 흥안령에는 樹海를 이루고 있다. 또 발전과 船便輸送을 가능케 하는 큰 강물과 비옥한 농토와 농산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이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에 90년전부터 눈독을 들인 일본이 교활한 공작과 무력으로써 만주를 손아귀에 넣었다.(2次大戰終戰時 일본인들은 사할린, 대만, 사이판, 팜 등의 南洋諸島와 남북 한국을 잃은 것은 체념할 수가 있으나 만주를 잃은 것은 애석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만주국 창건의 주역인 일본군부(육군)가 일본의 생명선인 만주국을 조속히 建設해야 된다고 하며 일본본토에도 없는 야심적인 기구(건축국)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건축국의 한 간부집단잔치에 동료들과 초대받고 가서 들은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관동군참모제4과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 건축국에 들르기라도 하면 40, 50대의 科 處長들이 예의 바르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表題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는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나, 말이 나온김에 敷衍해서 말 하겠다.

關東軍, 세계에 100만 강군으로 알려진 野戰軍으로서 이 관동군에 겁을 먹은 미국이 소련을 끌어들었기 때문에 38선이 생기게 됐다는 설이 있다.

參謀 第四課라는 곳은 新京의(長春) 사령부내에 있었으며 만주국의 정책을 일일이 체크하고 간섭하는 기구로서 그때의 참모장은 後日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케 하여 2차대던 참전을 강인하게 결정하고 終戰 수습개월전까지 陸軍大臣과 總理大臣을 겸직하고 공포정치로 全 日本을 호령했던 면도날이라고 별명이 붙은 東條英機이다. 이 자가 參謀長으로 있는 동안은

植田이라는 사령관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기밀비지출을 철저히 억제하는 바람에 사령관의 사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前職은 關東軍 헌병사령관이었고 군국주의의 골수분자인데 戰犯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上記 건축국에 末席으로 재직시 소속과에서 後學을 위해서 白系 러시아인들이 집단생활하고 있는 「가작크」村을 견학 간다기에 일행에 끼어서 견학하고 그 이색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생활풍습에 느끼는 點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 하고자 한다.

2. 「가작크」村的 생활방식 및 주택구조

「가작크」村이라 함은 저 有名한 「가작크」騎兵을 연상 할 줄 안다 과연 그런 유래가 있었다.

소련 공산혁명 당시 국외로 추방 또는 도망쳐 나온 황족, 貴族軍의 고급장교와 지주 고급관리와 재산가층으로서 미처 구라파쪽으로 피신 못한 일부인들이 군신또는 가족동반으로 만주 땅으로 넘어 왔다는 것이다. 즉 밀입국을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러시아인들은 무국자이며 일본인들은 이들을 白系 러시아인이라고 通稱하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수준은 일본인을 능가하는 고수준이었다. 그러나 만주로 넘어 와서는 이미 무력하고 빈 털털였기 때문에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도 추방당하기 전에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죽을 고생과 육체노동 이라도 해야만 호구지책이라도 취할 수 있는 처지였다고 했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안정을 되찾은 이들은 별채업 목축과 농업, 수렵모피업, 기계공, 운전수, 약품상, 러시아식당 밀크홀 겸 재과업, 카바레, 서양여자만 고용한 유곽 등의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가 본 「가작크」村은 목축농업과 수렵모피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 마을의 創村當時 「가작크」騎兵연대 장교출신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작크」村이라 호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건축국의 소재지인 新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케익과 위스키, 초콜릿의 맛이 어찌나 좋은지 그만 반해 버렸었다. 나만이 아니고 구미 각국을 다녀본 日人들도 러시아 케익과 위스키 초콜릿은 世界 정상급으로 꼽고 있었다.

나는 심심하면 獨身寮 친구들과 이 러시아 다방 겸 과자점을 무수히 出入했으며 영양이 많은 러시아스프와 黑빵으로 한끼를 때우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記憶된다. 총각때라서 러시아식다방에 종사하는 18,9세쯤 돼보이는 白色 유니폼을 몸에 찰싹 달라 붙게 착용한 금발의 귀염성있는 白系 러시아인



아가씨들의 천사같은 매력에 끌린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일본인 총각녀석들도 얼빠진 상태로 “일본처녀들은 왜 저렇게 호박같이 생겼느냐”고 한탄할 정도로 우아한 美人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40세 전후가 되면 왜 그런지 많은 수가 뼈꾸샤처럼 똥보가 되어버리는 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가작크」村은 신경에서 기차로 7시간쯤 걸리는 할빈역(안중근의사 거사역)에서 대절버스로 1시간 30분쯤 걸리는 교외에 위치해 있었다. 신경이니 할빈이니 하면 우리와는 연이 먼 북방의 아득한 타국도시로만 느껴질지 모르나 8.15전에는 부산에서 할빈까지 「望」이란 급행열차가 또한 부산에서 신경까지는 「光」이란 특급열차가 일본 만주 간의 연락을 위해서 매일 왕복하고 있었는데, 이북땅 정주-신의주 구간에서는 열차내에서 고등계 형사들의 검문이 있었고, 신의주역에서는 세관 검사를 받고 철교를 통과 만주 안동역(지금의 원동역)으로 들어 갔으며 서울에서 신경까지는 약 22시간, 할빈까지는 29시간쯤 걸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대련에서 신경까지는 초특급열차가 운행되고 있었는데 일정때 부산-하관간 연락선처럼 일본 구주의 하카다항에서 7천톤급 연락선이 대련항까지 매일 왕복하며 그 연계역할을 했던 열차였다, 이 열차가 통과할 때는 여타 열차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기때문에 북선이면서도 부산발 급행열차등은 중간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통과 후에 운행해야 했었다.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열차에는 그때 이미 냉방(미국수입)장치가 돼 있었다. 물론 일본측이

「가작크」村이라 함은
有名한「가작크」騎兵을
연상 할 줄 안다.
소련 공산혁명 당시
국외로 추방 또는
도망쳐 나온 황족,
貴族軍의 고급장교와
재산가층으로서 미처
구라파쪽으로 피신못한
일부인들이 군신또는
가족동반으로 만주 땅으로
넘어 왔다.

경영하는 남만주 철도주식회사(노일전쟁 승리로 일본의 이권으로 확보한 것)의 열차였으나 냉방장치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본토에도 없는 파격적인 것으로써 일본이 만주국의 건설과 통치에 얼마나 야심적으로 심혈을 경주하고 있었는지를 이 일례를 보더라도 짐작이 갈 것이다.

「가작크」촌에 도착하니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는데 노령의 그러나 건장한 일본말을 약간 할 줄 아는 러시아인 촌장이 맞아 주었으며 곧 바로 한 목축농가에 안내 되었다.

젓소 8마리와 닭, 오리 40여마리를 기르며, 한편 물오리와 꿩 기타 동물의 수렵으로(만주는 세계적인 수렵지임) 생계를 유지해 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 겨울철이면 꿩과 물오리, 메추리 등 수렵품이 자연 동태 상태로 수십화차분씩 시베리아 철도편으로 구라과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니 생계에 보탬이 됐을 것으로 짐작 됐다. 가족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4인 가족이었으며 부업으로 오리털 침구와 동물의 剝制도 해서 판다고 했다. 녀석치는 못하나 먹고 살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았다.

「가작크」촌의 가족은 낙엽송 $\phi 30\text{cm}$ 내외의 井자형 통나무집이었으며 내부 칸막이는 전혀 없고 240cm 높이의 천장은 명애를 걸고 3cm 두께의 천장판자를 깔고 「다 헬트」를 천 위에 진흙과 석탄(생석탄석을 불화시킨 것으로써 접착력이 있으므로 모래와 섞어서 쌓기물타로도 많이 쓰임)에 쇠털여물을 섞어서 이긴 것을 30cm 두께로 깔아서 마감지워 놓았는데 이것은 겨울철 실내의 열 도피를 막아주는 방한천장이었으며 표면은 상당히 단단히 굳어 있었다.

지붕은 지붕동자를 세우고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걸고 급경사지게 12mm 홍송판자를 5층으로 이어 놓았는데 판자의 폭은 120mm 정도이고 판자의 양가장에는 1cm폭의 물흐름 홈이 판자길이 끝까지 파져 있으며 각 판자층이 물이 새지 않도록 각각 어긋나게 포개져 있었다. 얼핏보면 허술하게 보이면서도 풍부한 목재 자원을 지혜롭게 “잘도 이용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양측 합각부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붕은 흡사 우산을 받치고 있는 꼴이다.

동측 합각 부분에는 사람이 오르내릴수 있도록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지붕 밑은 우리 한옥으로 말하자면 양쪽이 터져 있는 다락처럼 되어 있다고 하겠다.

실내 바닥은 방한 때문에 36mm 정도의 두꺼운 판자를 깔고 붉으스레한 유성 도료를 발라놓았는데 판자의 이음새도 전혀 안보이게 마치 「리노름」을 깔아 놓은듯 듯이 보였으며 마루 밑에는 동서측에 한개씩의

취 구멍처럼 생긴 환기통이 설치 되어 있었으며 유리창은 남과 북측 벽에 각각 2개씩 설치 되어 있는데 창외 방한 공간의 폭이 180mm 정도되는 2중창들로써 남측창은 북측창에 비해 2배가량 크게 설치 되어 있었다. 이 창들에는 각각 외부에 판자 덮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문틀이나 창틀의 벽체와의 접착부에는 「울」(쇠털을 카펫트 처럼 20mm 두께로 짜아 놓은 것으로써 건축공사 시공때는 외벽측 나무문틀이나 창틀 뒷면에 부착시켜서 틀목의 수축 팽창과 방한에 대비하는 쇠털천)도 부착시켜 놓았다고 하며 방한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출입문은 동측에 하나 있는데 바람막이문과 80cm 간격을 두고 2중문이며 외부문의 두께는 70mm나 됐으며 문의 상부의 유리는 내외부에 각각 유리를 끼워서 2중이며, 내측 문은 45mm 두께에 상부에는 한장유리로 끼어 있었다.

통나무벽 내외부는 바람막이와 방한을 위해서 통나무 사이를 삼나무 겹질로 마치 배 밑창처럼 완고하게 메꿔 놓았으며 벽면에는 방한용으로 「가오가니대」(옥수수대를 60mm 두께로 압축하여 8번선 줄에 엮어 놓은 것)를 스티로폼을 붙이듯 부착 시켜서 마감 지워 있었다.(크기나 역할이 스티로폼과 비슷하나 좀 거칠게 된 제품으로서 원래는 양쪽면에 회죽을 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건물의 기초는 굴착을 하지않고 맨 바닥에 址臺石처럼 흙벽돌 2B를 「불화석회물탈」로 20cm 높이로 쌓고 그 위에 井자형 원목 통나무집이 얹혀 있다. 방한효율은 「시멘트물탈」보다 「불화석회물탈」이 월등히 좋으며 부착력도 좋아서 중국이나 러시아인들은 추운 지방의 오랜 경험으로 벽돌조적은 거의 이 시공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정식 기초공사를 한다면 이 지방 結氷線이 1.8m이기 때문에 안전선인 2m 깊이가 필요한데 본격적인 건축이 아닐 때는 이것을 생략하고 대개 약식기초로 끝내고 만다.

만주에서 가장 추운 黑河나 하이탈지방에서는 2.5m 깊이의 기초시공을 하며 남만주지방에서는 1.2m 정도의 깊이인데 스티로폼같은 단열방한재도 없고 공간 쌓기도 극소수가 하고 있었으나 보급이 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전 만주를 9구역으로 구분한 방한시공 규정이 있어서 벽돌벽의 두께등의 일람표가 건축국에 비치 되어 있었는데 할빈지방의 벽돌벽 두께는 2B이고 흑하지방은 2.5B였다.

요즘 신문기사로 본다면 시베리아의 우리 민족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위도상으로 보아서 黑河線 이남으로 보이므로 기후면에서는 흑하나 할빈지역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것이 참고될 경우도 있을것 같기도 하다.

집 내외부를 살펴보고 느낀 것은 대체적으로 부재가 컸으며 좀 거칠고 투박한 감이 없지않으나 완고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내 중심부에는 다목적 일종의 벽로가 축조되어 있었다. 크기는 135cm×135cm×H90cm정도인데 이것으로 빵도 굽고 국을 끓이기도 하며 또 태우기만 하는 「단빠」를 이용한 장치도 되어있으며 「페치카」 역할도 하며 조리대로도 쓰이게 되어 있다. 연료는 유연탄을 쓰고 있었으며 굴뚝은 한쪽귀에서 직선으로 천장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다.

개수대는 목재에 함석을 씌운 것으로서 벽로 곁에 놓여 있으며 화장실은 별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목조로서 계란형 구멍이 뚫린 汲取式으로 되어 있었다.

실내에는 작업대 겸 침대가 수개 있는데 겨울철에는 벽로의 사방에다 침대를 가까이 놓고 모두들 발을 열기가 많은 쪽으로 두고 잔다고 하며 어린애가 있을 때는 목재요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린애를 넣고 눕지않게 벽로의 상변에 놓이게 천장에서 끈으로 달아매어 놓는다고 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초겨울이었는데 벽로 한쪽에는 함석재 한 말크기 통에 우유가 3/4가량 담겨 있었다. 이통에는 간접으로 불기가 닿게 되어 있었으며 물이나 차대신 향시 마신다고 하며 한사람이 하루평균 한 되정도를 마신다고 했다.

40세가 넘어보이는 이집 주부는 벽로 위에 書見器를 달아매어 놓고 책을 읽으며 남편이 총으로 잡아 온 물오리털을 침구용과 공예용, 버릴것 등 3종류로 구분하여 뽑고 있었는데 그 효율적인 생활방식에 앞서가는 족속들이란 감이 들었으며 물오리 고기요리도 만들어서 빵오븐칸에 넣어 남편이 돌아올때까지 따끈 따끈하게 유지되도록 해놓고 있었다.

村長의 뜻으로 물오리 고기요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안주로 「보드카」주의 대접을 받았는데 물오리 고기요리가 이렇게 맛있는거냐고 칭찬이 자자했다. 신이난 촌장은 사람을 시켜서 자기집에서 火酒(아부상)와 「페로시끼」(고기와 야채볶은 것을 밀가루 튀김에 말아놓은 것)와 「카루파스」(소세지의 일종인데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으로서 돼지창자를 외피로 하고 肉과 脂를 양념과 섞어넣고 열연으로 훈제한 것)를 가져왔는데 이것들의 맛이 또한 일품이어서 주홍을 돋구어 놓았다. 쟁시와 같은 생활이면서도 일상 먹고 사는 이 세가지만의 음식의 질이나 맛으로도 혁명전의 러시아호족들의 생활수준을 엿볼수가 있었으며 우리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옛날에는 대다수가 가난했기때문에 주·식 다같이 질이나 맛보다는 양, 즉, 배부르게 먹는

것만이 능사처럼 되어있었으며 양이 많고 굵직굵직하게 돼있는 음식으로 빨리 배를 채우기를 좋아하며 식사때는 말도 안하고 부지런히 먹기만 하는 습관이었는데 그내들은 우리와는 달리 수년 또는 수십년 묵은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여러가지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며 긴시간 즐겁게 먹고 인생을 즐기는 식도락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촌장의 설명으로 짐작할 수가 있었다.

물론 공산화 이전의 露帝때의 상류층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옛날 「모스크바의 밤은 길어서」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이 호화찬란한 문화와 생활풍습이 전수되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때도 서민의 생활수준은 낮은편이었다고 하며 현재의 소련서민의 일상생활수준도 형편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이미 잘 알고있는 터이다.

실내에 있는 의자수가 부족하여 작업대 겸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데 거기 놓여있는 이불카바에 탄천으로 큰 토끼모양이 붙어있기에 왜 이렇게 큰토끼모양을 붙여 놓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주부가 깔깔웃으면서 남편이 담배를 물고 술에 골아떨어져서 자다가 태워버렸는데 그냥 태우자니 보기 흉할것 같아서 탄천으로 토끼모양을 만들어서 때워놓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자기네 집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을 것인지 비교하며 생각하고 있는 표정들이었으며 그중에는 머리를 몇번이고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집 밖에는 토굴 방공호같은 것이 있었는데 큰돌들을 뜨겁게 하여 땀을 빼는 「사우나」로 필란드 古式 욕실장치라고 했다.

영하15℃~35℃나 되는 겨울철을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아녀자는 집에서 지내나, 남자들은 방한복을 단단히 입고 수렵이나 별채를 해서 돈을 번다고 했으며 겨울생활은 야채, 곡물 등을 얼지 않게 지하실이나 별도의 토굴에 보관하며 육류의 공급은 영하 8~9℃의 겨울에 각호마다 큰 소한마리씩을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내어 앞서 설명한 합각부가 터져있는 다락에 올려놓으면 늦은 봄철까지 자연냉동 상태로 얼어있다는 것이며 끼니때가 되면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톱으로 잘라다가 요리해먹는다고 했다.

3. 이국정취가 물씬풍기는 도시 할빈

여기서 안중근의사의 거사로 유명한 이땅 할빈을 자세히 소개하겠다. 나도 5~6개월 체류한 적이 있는데 중국땅에서는 특이하게 이국정취가 물씬풍기는 도시다.

첫 인상은 중국땅이란 것을 잊을정도로 구라파화 되어있다. 건물, 가로, 강변 할 것 없이 영화에서

이들의 생활수준은 일본인을 능가하는 고수준이었다. 그러나 만주로 넘어와서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도 추방당하기 전에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죽을 고생과 육체노동 이라도 해야만 호구지책이라도 취할 수 있는 처지였다.

이들은 별채업, 목축과 농업, 수렵모피업, 기계공, 운전수, 약품상, 러시아식당, 제과업, 카바레 등의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보는 구라파도시 그대로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일전쟁 전 대련근처의 여순에 大海軍基地를 설치하고 육군으로는 할빈, 심양, 장춘 등 주요도시를 장악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無言으로 위협하며 부동항과 아시아 진출을 노렸던 공산혁명전의 露帝가 할빈을 제2의 모스크바로 만들 작정으로 마음먹고 건설한 도시라고 하며 모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위락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인지 변화가의 건물에는 거의가 지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하실들의 태반이 빠검 댄스홀이거나 나체쇼장, 경음악식당 또는 이것 저것 짬뽕식의 업체들로 꽉차 있으며 금발미인들의 유곽도 있어서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할빈을 찾는 관광객들로 매일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도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술과 여자가 있어야 되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급속발전책이라는 말은 군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으며 또 실제로 奧地개발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일본의 요정 겸 유곽을 먼저 들여보내는 일본의 수법이 있었는데 여기 할빈도 특무기관의 총본부도 있고하니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 특히 白系러시아인 등의 외국인의 뒤에는 특무요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까 군의 특수공작이 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여름철에 할빈을 상징하는 송화강쪽에 올라서면 강의 중심부에 섬이 있고 짙은 녹색 숲속에 구라파식 양옥별장들이 각양각색으로 서있으며 나도 할빈에 처음 왔을때의 경험인데 이 멋진 별장들과 강물과 떠있는 백색 유람선과 숲의 녹색이 기가막히게 잘조화되어 곧 무슨 좋은일이라도 생길 것만 같은 낭만적인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근처의 벤취에 앉아있던 금발의 백색미인이 은어같은 몸매를 발랄하게 움직이며 다가온다.

틀림없이 소문에 들던 「스택끼걸」이로구나 하고 손을 올리니까 양어깨를 치켜올리며 웃음이 터질 것같은 표정으로 「아루끼마센?」 일본말로 견지않으시겠어요? 하며 팔장을 끼라고 내민다. 고개를 약간 숙여들고 긴눈썹의 파란눈으로 대답을 간지럽게 재촉한다. 마음에 들거든 나꿔채어 즐겨라

하던 惡友의 말도있고 해서 팔장을 끼고 강독을 거닐기 시작했다. 일본말을 자기내 고등학교에서 배웠다고 하였는데 발음은 좋지 않으나 보통대화에는 별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사했다. 10분정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두배의 팀을 주며 가라고하니까 아쉬운듯 눈을 예쁘게 흘리며 「아리가도」를 두번 연발하고 생긋웃으며 사라졌다. 이들은 대개가 러시아계고등학교 고학년생으로서 학비나 생활이 넉넉치못하니 「아르바이트」로 소위 「스택끼걸」이라는 일종의 알뜰한내원 노릇을 하여 벌어들인다고 하며 몸은 팔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인생에는 항시 뒷구멍이 있는 법이니 알수 없는 일이기도하다. 또 이들과 日軍기관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알 필요도 없었다.

할빈을 동경하여 관광오는 일본인의 대다수가 금발미인과의 一夜甘夢을 목적으로 찾아오는데 소문만 듣고 송화강둑에서 「스택끼걸」과 만나서 그 청아한 미모와 알뜰하게 친절히 해주니까 됐구나하고 얼이빠지고 행여나 하는 기대감에서 고급포도주에 맛있는 음식을 일류호텔로 데리고가서 사먹이고 댄스홀에 가서 신이나게 춤을 추고 이제 다 익었겠지하고 기준액의 몇배의 팀을 주게되나, 「라스트탱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늦어서 부모님에게서 꾸지람들겠다고 인정사정없이 빠이 빠이 해버린다는 것이다. 잔뜩벼르다가 닭쫓던 개꿀이 되고, 죽기전에 백인여자를 한번만이라도...하는 것이 평생소원인데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순간이니 죽지도 못할 지경이다.

울분을 참으려고하니 세포조직에 이상이 생겨서 암으로 변할염려가 있게된다. 만부득이 파란눈 족속에의 복수도 겸하여 금발들만 모여사는 레스링도장에 택시를 잡아타고 찾아가서 한것 맘을 빼버려야 억지암의 염려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주책없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으니 이정도로 해두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바야흐로 만주나 시베리아로 진출할 기회도 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떤기회든 이 글이 다소나마 참고가 된다면 다행으로 여기겠다.

□정정합니다□

지난 5월호(통권253호)에 게재되었던 “공동사회를 위한 建築”(李廷根)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P.74 영문제목 : Community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Community
- P.76 우측 첫째줄 사라지고→살아지고
- P.78 우측 33째줄 대폭발→빅뱅
- P.79 좌측 23째줄 대폭발→빅뱅
- P.81 우측 19, 26째줄 결연속→결연결속

“會員名簿” 電話番號를 訂正합니다.

- <서울지부>
李鍾萬/녹야·현익·백 종합건축사사무소
(사무실)586-7707
- 韓昌鎭/(주)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사무실)279-4415
- <경기지부>
姜明求/금목건축사사무소 (사무실) (0345) 82-0901